이사야 조직신학 III, 성령

(이사야 32:15~20)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사야 조직신학 III, 성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사야 조직신학 III, 성령'
이사야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제에서 이사야서를 조직신학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뱅의 기독교강요의 기본 틀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칼뱅의 기독교강요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32장이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서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문득 저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지루하실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우선 전하는 자가 기쁨과 감동이 충만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하는 자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딱딱한 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정직하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2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앞서 보았던 29~31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사야의 조직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 계시거나 영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보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꼭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뷰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는 부활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자리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을 죽게 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피난 가듯이 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폭우와 폭풍처럼 내 마음으로 쇄도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갈증이 있기에 마음에 돈을 담았는데, 돈을 벌려고 씨름하다보니 탈진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자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때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문제들을 움켜쥐신 모습입니다.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나의 문제를 장악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비유적으로 마음의 시선이 하늘 보좌에 닿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마음의 시선이 하늘 보좌에 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내막을 살펴보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 천국(heaven)을 말하는 것이지, 물리학적 차원의 하늘(sk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시공

간을 초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유럽에 가 있다면, 나의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진 유럽에 있는 애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에 애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인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보는 것은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학교에 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자녀를 보는 것은 자녀가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내 마음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인간이 마음에 담는 대상과 성령님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으로 인식한 자녀를 담은 것이지 실제로 자녀의 영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자녀의 행동에 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속에 담고 있는 자녀의 모습과 실제로 존재하는 자녀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라고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자녀가 감옥에 가게 되면 부모가 뛰어나와서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혹은 자녀가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서 부모가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우리 딸이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담는 대상은 인식된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오해로 인해 절망도 하고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갈구하던 마음을 죽이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을 죽이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성령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세상의 대상을 담는 것과 하나님을 담는 것의 차이입니다.
육체로 인식된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담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판단과 의도와 기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자녀를 담았어도 그것은 실제 자녀의 영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인식된 자녀의 모습을 담았기에 실제 자녀의 행동과 항상 괴리가 생겨납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을 생각해봅니다. 내 딴에는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을 줬지만 아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상상도 못할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에는 이러한 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대상은 인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주관적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 주관에 연관되지 않으시기에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대상들이 내 생각과 판단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과 다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집 잡아 산헤드린공회원들이 재판을 엽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종교지도자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하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경의 비밀을 해석하는 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마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님을 통해서 산헤드린공회원들 앞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폭풍 같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예

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문제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죄사함을 받기 위한 장소로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까요? 이것은 흡사 불교적 영성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나 자신의 완전함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완전한 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중세의 수도원 영성이고 불교적 영성과도 일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일체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하여 죄사함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내가 깨끗하고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의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불교적 영성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삶의 급박한 상황들 앞에서 십자가를 찾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암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일단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허락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마음에는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존의 삶은 항상 조급했습니다. 눈앞의 문제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산헤드린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거나 말을 잘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귀중한 열매이지만 성령님의 전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전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눈

앞에 문제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선적이고 더 뚜렷한 현실로 느낍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와 같은 경험입니다.
강한 빛이 비추어지면 작은 빛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산헤드린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영향력을 작은 빛으로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큰 빛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 문제가 있다면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돈에 묶인 나의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마음은 하나님을 환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밝게 보였던 돈 문제가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또한 돈 문제를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히 보는 동안 내가 마주한 문제는 하나님이 밝히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하며,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어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교인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세상의 것들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 교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 마음의 즐거움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뵙기 위한 뷰포인트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한 시도 내려오지 않게 해주셔서 성령 받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